샌드위치 위기대처 기본자세

(출14:1~14)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샌드위치 위기대처 기본자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샌드위치 위기대처 기본자세'

우리나라에 요즘 샌드위치 위기 논쟁이 한창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에 관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참여하게 되었고,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로 높이 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적국에서 미사일을 쏠 때에 그것을 잡아채는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미국이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반도의 남한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군사력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둘 다 부적절하게 대응함으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라 안에 팽배한데 야당은 계속해서 박 근혜 대통령에게 주권 국가로서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지만,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누구라서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처

리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힘을 모을 때에는 모아야죠. 이제까지 동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두고 중국에 협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미국과 지금까지 왔고 중국과도 앞으로 함께 가야 하는데 중국과 함께 가겠다고 지금까지 온 미국을 버리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중국과 함께 해야 하지만 아직 미국 경제가 죽지 않았을 뿐더러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누구라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샌드위치 위기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샌드위치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삼성의 스마트폰도 지금 애플의 고가 제품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문제와 중국의 저가 제품이 쳐들어오고 있고 쫓기는 상태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상위권의 고가제품의 기술을 따라잡아야함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폴,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같이 우리를 뒤쫓아 오는 나라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다 샌드위치 위기로 압박감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감에 쫓기면서도 앞에 달려갈 길이 보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반대로 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뒤에서 나를 쫓는 자가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가족들은 자꾸 결혼하라고 압박을 주고, 주위에서도 뭐가 부족하기에 시집을 안 가느냐고 시선이 곱지 않지만 현실에는 마땅한 신랑감이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눈독을 들이면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입니다.

이 샌드위치 위기에 대처하는 기본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몸에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습관이 있습니다. 기본자세는 백 가지, 천 가지의 응용동작으로의 이행이 가장 쉬운 자세로, 이 기본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응용동작과 응용자세로의 이행이 쉽기 때문에 아주 즐거울 수 있습니다. 테니스나 탁구를 쳐봐도 기본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응용동작이 몸에 익혀지며 실력이 향상되지만,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실력향상에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샌드위치 위기로 앞뒤가 막혔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지만, 그 샌드위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샌드위치 위기는 천 가지, 만 가지의 응용동작이 나올 수 있는 창조적 산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샌드위치 위기 대처의 기본자세는 13-14절에서 드러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마디로 샌드위치 위기에 대처하는 기본자세는 ‘가만히 서서 / 가만히 있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기가 기본자세로서 잘 터득되면 그 다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백 가지, 천 가지 응용동작이 나오면서 샌드위치 위기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창조적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난 홍해도하의 기적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구약성경 전체가 언약(Testament)입니다. 이 홍해사건에서도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지는데 홍해도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기본자세를 익히는 모든 자에게 홍해도하와 같은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본문인데, 가만히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도 없는 것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만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대책을 세우거나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 말이 없이 찬찬히 있는 것 / 움직임 따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 없는 것이고, 동작이 없는 것이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말이 없으려면 생각이 없어야 하는데 마음이 시끄러우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것이고, 말이 없어서 입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 손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 몸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진정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가만히 있기'라는 샌드위치 위기를 대처하는 기본자세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게 만드십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바로의 마음을 다시금 강퍅하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추격하게 하신 것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즉, 홍해사건의 말씀이 선민들에게 대대로 주어질 약속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믿는 모든 선민인 공교회의 일원으로 삶에서 샌드위치의 위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도하의 사건이 이례적으로 일어나고 끝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 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선민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광야 연수기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으로 광야연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으로 바로 가만히 있기라는 샌드위치 위기 대처의 기본자세를 몸에 익히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당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샌드위치 위기를 연출해 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있기가 가장 힘든 상태로 몰아넣으신 것인데, 가만히 있기라는 기본자세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강조해서 보여주시려고 가

만히 있기가 가장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장자를 잃은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와 군대들이 복수심이 충천한 상태에서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오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앞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도망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필사항쟁(必死抗爭)의 결심을 하는 것이 어렵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서 노약자라도 구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 보다 더 어렵고,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고 하는 필사항쟁의 결심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만히 있기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 때에는 극도의 두려움에 쫓기게 되고 행동 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일 경우에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입니다.
원망이 나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내게 닥친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먹고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샌드위치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나를 뒤쫓고, 먹고 입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닥치는데 이게 바로 샌드위치 위기입니다.
‘결국 우리 가족이 이렇게 루저가 되어서 늪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망하는 것인가? / 내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나 타고난 불운한 운명 속에 빠져서 결국 헤쳐 나오지 못한 채로 이 가난을 대물림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엄청난데, 그러나 길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자식은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고 이럴 때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지만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일어나고 절망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만히 있기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만히 있기의 기본동작은 이 땅에서 나를 샌드위치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제 그냥 마음이 찌부러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 가만히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와 할례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유월절 역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가만히 있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기는 나를 앞뒤로 몰아붙이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샌드위치 위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반응하면 길이 없

을 때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두려움이 나를 몰아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나를 몰아갈 때에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가겠지만, 두려움에 쫓겨서 가는 모든 길은 정답이 아니므로 길이 없으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 눈에 길이 보이면 그리로 뛰쳐나가지만 그 길은 정답이 아니므로 더 큰 오류와 더 큰 함정과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그 문제들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므로 존재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면 됩니다. 어떤 샌드위치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이제 내가 볼거리(구경거리)입니다. 대응하고 반응하고 대처해야 될 거리가 아니라 볼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행동하시는 것을 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이 가만히 있기는 요즘 유행하는 불교의 명상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는 모세가 같이 있기 때문이고,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약속이 되어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기로 한 약속이 주어져있습니다. 그 모세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고 모세가 없다면 뭐든지 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가 조용히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문제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영도자로 삼는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수행해나가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기 위한 일을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생각도 가만히 있고, 입도 가만히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손도 가만히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고, 발도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 죽었다고 인정하는 가만히 있기의 기본자세가 몸에 익으면 나를 억누르는 모든 샌드위치의 위기는 이제부터 내가 볼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다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셨고, 사도들도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고, 이삭도 이렇게 살았고, 야곱이 마지막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윗도 이렇게 살았고,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했고, 다윗이 많은 싸움을 치렀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기라는 기본자세에서 나온 응용동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을 때에 이 세상에 담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 앞에서 가만히 있기로 기본자세를 취하시며 나오게 된 응용동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앞에서 반응할 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반응하시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을 취하실 일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도 됐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 오직 마음을 아버지께 드린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문제와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모든 상황이 다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는 문제와 과제가 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민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기본자세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희를 앞뒤로 누르는 샌드위치 위기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따라서 너희 마음을 샌드위치로 압박하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고백입니다.
나를 압박하고 있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으니 얼마나 급박하고, 홍해바다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민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젯거리로 가로막은 바다와 그렇게 큰 문젯거리로 추격하는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신앙고백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돈 문제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이 압박감이 얼마나 큰 현실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라고 이것들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고백인데, 가만히 있기가 바로 신앙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옆에 와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안 보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먼지들이 있지만 안 보일 때에는 먼지를 닦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햇빛이 쫙 들어와서 먼지가 눈에 띄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걸 닦자니 귀찮고 안 닦자니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비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을 보느라고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지구가 티끌일 수밖에 없는 무한한 우주를 말씀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아버지이신데, 이 지구 위에서 너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일 수가 없고 그걸 문제로서 보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가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면서 나를 아버지로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선민들이 이 지구에서도 티끌만한 크기인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마음에서 중단하거나 그것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선민의 자존심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압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종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에 먼저 사로잡히게 된다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선민의 모습이 아닌, 무 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나의 다급함을 호소하는 일반 종교 심리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부르짖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므로, 가만히 있기가 기본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창조적인 사람이나 상상력의 대가라 할지라도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서 있는 가운데 지나갈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민이 살아갈 맛이 난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기본자세만 취하면 모든 샌드위치의 위기는 볼거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수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구원하심을 보면서 사시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가만히 있음으로 내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가게 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쥐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경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